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송됩니다. 목요일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수요성경공부

수요성경공부는 앞으로 2주에 한번씩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성경공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4. 2024 사무총회

2월 25일(주일) 2023년도 재정보고와 감사보고를 위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1/21)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26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영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3:7-15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무엇을 하리이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2월 4일	2월 11일
최빅토리아	강민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12)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본문 : 눅3:1-6

“무통문명”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통을 겪기를 싫어합니다.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세상은 모든 산업과 사회가 무통을 추구하며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은 사실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금욕주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 받는 자리 고난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힘든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각하라고 부른 점을 고려해서 그가 당시 고위공직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전 사회는 법보다 돈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오른다는 것은 청렴 결백해서는 오를 수 없는 위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써 내려가면서 의사 누가는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3장 1절에는 당시 유대 땅의 실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대 땅은 대한민국의 5분1에 지나지 않는 작은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4명의 분봉왕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총독이 있었으며, 대제사장으로서는 2명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는가를 보여 줍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명인 이유는 나머지 한명이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자신의 가족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세례요한을 언급합니다. 그는 사가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도 사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루살렘의 편안함과 세상의 성공과 부를 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오게 되는데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무통문명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길로 가면 서 고통 받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